



즉시 배포용: 2024년 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정부 기관간 소방 안전 실무단의 초기 권고안 공개

*실무단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강화된 안전 기준 권고안의 개요 공개*

*뉴욕주 소방법 업데이트 및 모범 관행 수립 등이 권고안에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강화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 간 화재 안전 실무단(Inter-Agency Fire Safety Working Group)의 초기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권고안 초안에는 뉴욕주 소방법(Fire Code of New York State) 개정을 비롯해 모범 관행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등의 추가적인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권고안이 채택되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법제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뉴욕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개발에 나서는 전국적인 리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에 앞서 여름 제퍼슨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서퍽 카운티 시설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시 부상자가 신고되지 않았고 유해한 수준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초기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산업을 통해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는 청정 에너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단의 권고안을 채택한다면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무단이 발표한 [15개의 권고안 초안](#)에는 전국적인 전문가의 지침 등이 포함되었고, 현행 뉴욕주 소방법(Fire Code of New York State, FCNYS) 및 기타 에너지 저장 소방 안전 기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예방 및 대응 조치, 모범 관행 등을 제안했으며, 프로젝트 허가 신청 패키지, 비상 대응 계획, 지역 소방서 훈련 등에 대한 피어 리뷰 의무 실시 등의 권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권고안에서는 또한 뉴욕 BESS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600 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 BESS에 적용할 목적입니다. 야외 시스템, 전용 건물 내 BESS, 기타 망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집중하여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뉴욕주 법사 위원회(New York State Code Council, Code Council)가 해당 권고안의 내용을 FCNYS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뉴욕주,

그리고 전국의 안전 기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은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실무단에 제출하여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될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동부시간 기준 2024년 3월 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무공해 그리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전기 에너지 저장은 수요가 높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기간에 많이 받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름 뉴욕주에 위치한 세 곳의 BESS 저장소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Hochul 주지사는 기관 간 소방 안전 실무단을 소집하여 리튬-이온 BESS 관련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실무단에는 국토안보 및 응급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소방방재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OFPC),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의 대표들을 비롯해, 전국적인 BESS 안전 산업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실무단은 최근 발생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현행 시설을 조사하고 법과 산업계 관행 간의 격차를 확인하는 목표로 운영되었습니다.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청정 에너지 미래의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며, 또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지사의 기관 간 실무단이 작성한 권고안은 최신 법령과 기준, 모범 관행을 통해 이러한 필수 기술을 이용할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비상 요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의 전력망에서 시스템 탄력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소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뉴욕의 청정 에너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통해 우리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친환경 미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은 언제나 Hochul 주지사의 최우선 목표였으며, 이번 권고안으로 뉴욕은 다른 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DEC 전문가들은 에너지 저장 배치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실무단을 지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 최고경영자인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관 간 소방 안전 실무단이라는 중요한 노력을 시행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축하를 전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뉴욕이 신뢰할 수 있는 무배출

전력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전국을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뉴욕 전력청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Justin E.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탈탄소화 전기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안전은 뉴욕 전력청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의 기관 간 실무단에 대한 지원, 우리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소방 및 안전 기준을 산업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에 앞서 실무단은 작년 말 화재 발생지에서 대기, 토양, 수질을 테스트한 [초기 결과 발표](#)에 따라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실무단은 워릭, 이스트 햄튼, 쇼몽 화재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시설의 배터리 제조업체 및 유틸리티 회사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주제별 전문가가 검토 및 분석할 것입니다.

실무단은 주제 전문가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사용 중인 상용 배터리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kW 이상의 운영 중인 모든 배터리 시스템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 2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뉴욕주 및 기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평가 체크리스트와 모범 사례를 수정하고 비상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배터리 화재로부터 학습한 교훈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를 목표로 최소 35%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and-Invest program (NYCI)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4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400곳,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30곳 이상,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약 500곳,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http://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